



마라 코손

# 경이로운 산

자연에 직선이 존재할까? 인간의 논리와 자세, 야망이 완벽에 도달할 수 있는 차갑고 딱딱한 그 선 위에서, 우리는 시들어버리는 걸까?

\*\*\*

직선이라...

한 사람이 가장 오래 서 있는 시간: 94시간. 길이가 가장 긴 사람: 잠깐, 가장 똑바른, 가장 큰, 현재 살아있는 가장 큰 사람은: 251cm. 기둥 위에 가장 오래 서 있었던 사람: 기둥 은둔자 시메온 스틸리테스는 평생의 대부분을 15미터 높이의 받침대 위에서 보냈다. 구름 낀 신의 손가락에 더 가까이, 모든 것에서 멀어져, 정적이면서도 끊임없이, 어찌면 상징적으로, 상승하면서. 그리고 나는, 정부 청사 줄을 서서 다음 이라는 표지판이 올라가기를 기다린다. 다음, 펜텔펜으로 손글씨로 쓰여 반짝이는 비닐로 싸인 채 긴 나무막대 끝에 높이 매달린. 나는 달걀 모양으로 쪼그리고 앉아 팽팽한 햄스트링을 풀어주고 내 안의 아기를 품어보지만, 그건 그저 내 마음속에서일 뿐이다. 예측할 수 없는, 거의 당김음 같은 몇 분 동안 계속 서 있어야 하니까. 그날 아침 갓 손으로 써서 우리에게 나눠준 번호표를 들고 줄은 계속 움직인다. 나는 25번이고 내 앞의 줄은 내 뒤의 줄이자 옆의 줄이고, 나는 이 줄의, 아니 이 '라인'의 자연스러운 질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라코스테 셔츠를 입고 바닥까지 닿는 포니테일을 한 직원이 열한 개의 손가락을 모두 들어올리며 우리를 뺨 같은 줄 안에 가두려 하며 선언한다. "아무도 당신들 사이나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게 하세요." 하지만 우리 사이로, 실례합니다, 수레를 밀고, 실례합니다, 철망 뼈대가 드러나고 속이 텅 빈 대머리 토피어리가 지나간다.

나는 자가 똑바르지 않은 곳에 산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나는 모든 자의 그려진 선들을 조사했다. 내가 수학을 배웠던 자들까지도. 밀리미터 사이의 간격이 모두 같지 않다는 걸 봤지만, 지금까지 모든 답은 어떻게 맞아떨어진 걸까? 작년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을 때 이 질문을 품고 있었다. 20년하고도 몇 달이 지났을까, 나는 영어로 쓰면 유성을 뜻하는 성씨를 가진 선생님을 찾아갔다. 굵은 척추 때문에 3피트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키의



선생님은 나무 자를 지팡이 삼아 계단을 올라가시며 말씀하셨다.  
“글쎄, 자연에는 직선이 없잖니...”

오후마다 나에게 원 그리는 법을 가르쳐주시던 나이 든 화가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양팔을 다 써야 넘길 수 있는 큰 종이에 말이다. 그녀는 세계일주를 할 수 있는 배를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해변에서 그녀를 볼 수 있는 거리만큼만 향해했다. 탁 트인 바다에 지루해지면, 나선형 메모장에 원을 그렸다. 계속해서, 음영을 넣어 종이에서 튀어나와 굴러서 물속으로 헤엄쳐 가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다시 꿈을 꾸었고, 그녀의 쓸모없는 아들은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모터를 당기고, 공책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곧장 해안으로 달려갔다. 방파제 근처에는 투움이라고 불리는 성게들이 모여 있었다. 내 서툰 토마토 발꿈치를 기다리며 숨어 있다가, 바늘이 사방으로 뻗은 핀쿠션처럼 터져나왔다. 그때부터 탁 트인 바다와 수영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물속에서 거의 눈알을 잃어버릴 뻔한 적도 있었다.

자, 생각해보자... 자연에서 유일하게 직선에 가까운 것, 아마도 일각고래의 엄니일까. 꼬인 앞니로 만들어진, 중세의 위대한 상상력이 담긴, 관광 기념품으로 팔리다가 런던 브리지에서 그날을 구한 창이 된, 시민의 영웅적 행위의 영예. 수중에서 일각고래들은 그 엄니로 물고기를 때리는 데 쓴다는 걸 우리는 발견했다. 런던에서는, 무대 위의 빌 나이와 그의 고독한 모습을 비추는 조명, 예수처럼 두 손가락만 곧게 편 그의 모습, 인간이자 신성한. 그가 독백을 하는 동안 누군가가 큰 소리로 묻는다. 그의 캐릭터도 관절염이 있나요?

노화가 죽었을 때 그녀는 관 안에서 너무나 뽀뽀해져서 어딘가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다. 공압관으로 된 사후 세계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위쪽으로, 하늘을 향해, 나는 천국으로 향하는 직선을 본 기억을 떨쳐내려 한다. 맹세하건대 나는 그것을 보았다. 우리 모두 치마 입고 배드민턴을 치며 입을 벌려 태양을 향해 셔틀콧을 피하는 동안, 영혼들이 긴 구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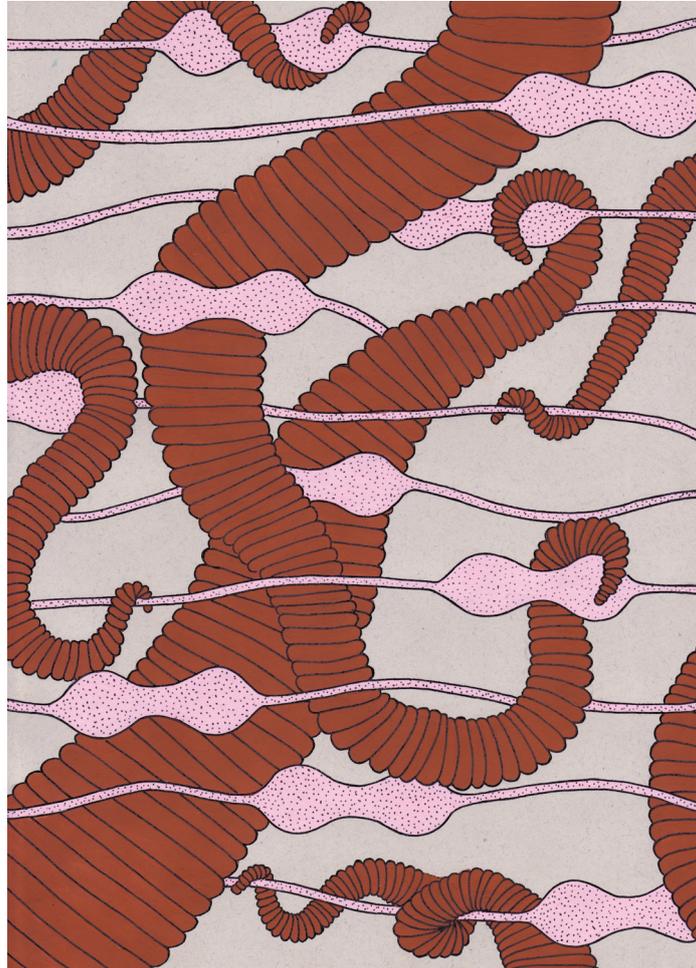
균일한 잎사귀를 단 덩굴 하나가 길을 향해 오고 있다.  
어쩌면 건너려는 건지도...

우리 모두 학교의 새로운 시멘트 기둥에 경탄했다. 진보의 상징이자, 가려운 벌레들로 만든 가발을 쓴 채 보행자 로터리에 서 있는, 하늘을 찌르는 조그만 남근 같은 하나의 시멘트 기둥. 우리는 거푸집이 터져서 중간이 임신한 것처럼 불룩해진 걸 발견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그 배에 키스하고 지날 때마다 손으로 문질러 행운을 빌면 곧게 될 거라고.



니티놀 와이어가 기억된 모양으로 다시 휘어질 때 어떤 생각이 되돌아올까?

비가 올 때 번개가 시멘트 기둥을 쳤다. 비는 항상 온다. 누더기가 된 방수포 깃발들이 발치에 누웠고 꼭대기의 철근들은 똑바로 서있으려 애쓰는 에어 댄서의 팔처럼 보였다. 그 짧은 기억 위에 우리는 꺾은 꽃들의 침대를 남겼고,



열린 보도에서 솟아나는 잡초들은 그것을 기리며 더욱 왕성하게 솟아났다. 그날 밤 우리는 케이블 TV로 트와일라잇 존을 보았고 로켓이 발사와 동시에 사라졌다. NASA 사무실의 한 남자가 텅 빈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화살을 하늘로 쏘았네...”의 한 버전을 낭송했다. 그는 창 밖을 보며 불확실하게 읊조렸다.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나는 모르네... 우주 시대를 위한 동요로구나.” 한편 알 수 없는 어딘가에서, 한 실종된 우주인이 물통의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 다른 우주인을 죽이려 했고, 약해진 채 죽어가는 우주인은 모래 위에 H라는 글자를 새겼다. 이 외계 사막에서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살인자는 경이로운 산을 올라 네바다의 광고판을 보았다. 전신주들! “그게 네가 하려던 말이었구나! 우린 여전히 지구에 있잖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등을 곧게 펴기 위해 교정기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시도해봤지만, 어깨는 여전히 굽고 머리는 다시 아래로 처져서 다시 모든 걸 시도해본다.



나는 그런 교정기 중 하나를 착용하고 데이트를 갔고, 그것은 내 유륜을 하늘로 치켜올렸다. 우리는 카우보이 그릴에 가서 커버 가수들이 발라드를 절규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공연을 하는 동안 가수의 발가락은 마치 발톱처럼 무대 가장자리의 금속 레일을 움켜쥐고 있었다. 나중에 쇼가 끝날 때, 그들은 팔을 위로 똑바로 들었다—신을 향해? “연구에 따르면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더라”고 내 친구가 말했다. 나는 접시 위에 아이스크림 콘을 올려두고 녹게 두면서 말했다. “조이, 네 곱슬머리 정말 예쁘다.” 그가 말했다. “고마워, 하지만 내 머리는 덩기열로 수혈을 받기 전까지는 직모였어.”

여전히 줄에 서서, 나는 허벅지를 할퀴었다. 깎지 않은 손톱이 광란의 원을 그리며 단순한 가려움을 공격하는데, 그러다 만지면 따뜻한 붉은 물집들이 온통 별자리처럼 퍼져나갔다. “빈대네요.” 의사는 지난 주엔 돋보기에 불을 비추며 내 다리를 살피더니, 빠진 아랫니 사이로 헤파 필터를 통과한 목소리로 진단을 내렸다. “빈대는 하나-둘-셋, 아침-점심-저녁처럼 당신을 먹어치워요. 내가 마지막으로 빈대 처방을 써준 건 정치 후보자들과 수감자들을 위해서였죠.” 내 온몸에는 오리온의 벨트 별자리 같은 두드러기가 생겼다. 충분히 직선처럼 보이는 흔적들, 몰래 당한 공격의 자국들. “하지만 피부에서 직선이 안 보이면 지그재그를 찾아보세요. 지그재그가 안 보이면 무리를 찾아보세요. 옷 솔기에서 아무것도 발견 못하면 해충 방제업자들은 부르지 마세요. 그들은 해충을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다시 올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항상 돌아오죠, 해충 방제업자들은...” 나는 목에서 발끝까지 사흘에 걸쳐 하루씩 간격을 두고 옴 치료제를 발랐다. 웰(well)과 헬(hell)과 운을 맞추는 퀘웰(Kwell)이란 브랜드였는데, 위험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팔꿈치 옆에는,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도 새로운 뜨거운 붉은 별들의 성좌가 생겼다.

“압착, 압착하세요,” 바닥까지 내려오도록 머리를 뒤로 묶은 한 남자가 외쳤다. 나는 여전히 줄 같지 않은 줄에서 있었고,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수축, 압착, 수축! 내 다리를 타고 양수가 흘러내렸다.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32번 표를 든 낯선 사람이 가족에게 전화로 외쳤다. “근데 거꾸로예요!” 구급차에는 발코니에서 널빤지처럼 누워있는 놀이를 하다 떨어진 사람이 실려 있었다. “자, 들어보세요.” 조산사가 8번 표를 든 낯선 이에게 말했다. “‘가고 있어요’ 아니면 ‘가는 중이에요’라고 해야죠. 아기가 정말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나오는 중이에요’라고 하면 안 돼요.” 코끼리 무늬 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이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의 안드로이드 폰에 속삭였다. “엑스맨의 사이클롭스가 가장 비극적인 돌연변이였어.”



“물에 닿기 전까지는 똑바른 게 뭘까요?” 48번 표를 든 사회자가 나를 구경하는 군중에게 물었고, 우리는 모두 손을 들고 한쪽 입을 가렸다. “스파게티!!!” 진정해요, 진정하세요. “헬로키티 팬티 있는데, 1폐소에 팔아요.” 사회자가 이어서 말했다. “왜 이렇게 싼 거예요?” 청중이 물었다. “굽히니까요!”

뒷담 근처의 고양이들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개울에서 우리 집의 커다란 깨진 PVC 파이프로 기어들어온 것은 7미터 길이의, 청새치 스테이크만큼이나 두툽한 그물무늬 비단뱀이었다. 도시 한복판에서는 특이한 광경인, 배가 불룩한 그 뱀은 밤 속으로 사라졌다.. 이틀 전, 나는 이웃집의 투투 스커트를 입은 늙고 관절염 있는 치와와가 혀를 날카롭게 안쪽으로 말며 기침하고 하품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게 그 녀석을 본 마지막이었다

행복한 생각을 해보자. 손으로 그리기. 소실점. 송곳니. 우리 개의 살 속으로 자라 들어간 첫 번째 발톱. 보티첼리의 음탕한 남근. 귀부인의 혹. 티라노사우루스의 팔. 가만히 쉬는 있는 손가락들. 노인용 칼슘 보충제 TV 광고. 수분 부족. 시든 셀러리. 인간 벨트로 30초 동안 가장 많이 돌린 양팔 홀라후프. 다리를 머리 뒤로 한 채 손으로 걸어서 10미터를 간 최단 기록: 12.52 초. 물구나무서서 비틀기 자세로 여섯 개의 달걀을 컵에 넣은 최단 기록: 7.88 초, 그리고 마지막에는 프라이팬의 썬니 사이드 업 달걀이 번쩍. 꼬부라진 풍요의 뿔로 들어가는 세 쌍의 엉덩이. 이상한 억양의 혀. 어찌면 모든 긴 선은 결국 고리가 되는 걸까,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뉴스에 나온 MRT 역 계단 난간 꼭대기에서 큰 몸을 파리 튼 비단뱀. 일반 상대성이론. 죽은 척하는 개미들. 아기 슬로로리스의 움켜쥐는 손아귀. 구부러지는 손가락들. 긴장으로 휘어짐. 축 처지는 남근들. 내 친구의 돼지를 바위로 착각하기, 하지만 바위는 하이힐을 신지 않는다.

나는 실제로 존재했던 반대들을 사방에서 찾아보려 했다. 거꾸로 있다던 아기는 실재하지 않았고 존재했다는 흔적도 없었던 것과는 달리, 반대들은 내 피부에서만큼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장악할 거라고 완벽하게 확신했다. 스팀 청소기로 아무리 많은 알을 죽여도 그들은 마룻바닥 틈 사이에, 가구 속에, 옷장 안에 있었고, 도대체 얼마나 더 스팀을 뿜어야 하고, 얼마나 더 태워야 하는 걸까? 그들은 내 가족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피부 위에 어떤 직선들을 그리고 있을까?

하지만 불행히도, 그래서, 가려움은 멈추지 않았고, 굳어가는 몸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히 스테이플러처럼 몸을 비틀어서 윗니로 내 허벅지를 스칠 수 있게 되는 꿈을 꾸다. 더 이상 동굴인간에서 시작하는 4단계 진화 그림처럼 똑바로 서있으려 하지 않는다. 이 자세로 나는 또한 우리 개의



왼쪽 발바닥 살을 파고드는 자란 발톱도 제거할 수 있다.

이른 아침의 비가 너무 세차서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여자 화장실에서 헤엄쳐 나오는 비단뱀을 발견했다. 손전등을 든 건 우리였다. 아무도 15센티미터 깊이의 물을 헤치고 가려 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을 젓가락으로 스파게티를 돌돌 말듯이 돌려서 드럼통으로 덮었다—농담이다, 나는 거기 없었다—하지만 다음날 나는 동물 보호소에서 데려가기를 기다렸고, 우리는 도시 한복판에서 비단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어찌면 비단뱀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도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경비실에서 함께 앉아있었다. 나는 장화를 신고 구부정하게, 그리고 내 뒤틀린 상상력은 썩은 생선 냄새가 나는 구멍 난 자루 속에.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나는 위키피디아에서 비를 피해 나무 아래 숨었다가 내 옆에 있는 것만한 비단뱀에게 먹힌 보석상의 이야기를 읽었다. “아마도 뱀이 실제로 인간을 삼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트럭이 오고 그 생각이 사라지자,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나를 괴롭혔던 모든 보이지 않는 반대들이 결국 알레르기 반응이었다는 것처럼.

### 저자 소개

마라 코손은 필리핀 마닐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다. 그녀는 절판된 필리핀 소설을 전문적으로 출간하는 출판사 익스플로딩 갤럭시스(Exploding Galaxies)의 발행인이며, 《더 마닐라 리뷰(The Manila Review)》의 공동 설립자다. 그녀의 소설 《앨리어싱(Aliasing)》은 2018년 북웍스(Book Works)에서 출간되었다.



편집: 잉고 니어만

편집: 로잔나 맥래프린

한국어 번역: 박재용

일러스트레이션: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한국어판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 2024, 마라 코손, 에바 파브레가스 & 와일드 퍼블리싱

스위스 바젤 응용과학대학교(HGK Basel FHNW) 예술 젠더 자연 연구소(Institute Art Gender Nature) 소속 기관